

청렴콘텐츠 공모 [단편영화 대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선물, 그 이상의 선물 >

근본 한 효 립

등 장 인 물

이철우(12세, 초등학생)

주인공. 매년 반장을 도맡고,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만큼 모범생이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구김살 없이 씩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다.

선생님(40세, 서숙희)

철우의 담임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끈다.

아빠(43세, 이재현)

철우의 아빠.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 자녀를 훈육
할 때는 원리원칙을 지킨다.

엄마(39세, 한영은)

철우의 엄마. 생계를 위해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탓에 다른 집 아이들만큼 신
경써주지 못해 철우 남매에게 항상 미안하다.

할머니(72세, 김명자)

철우의 할머니. 식당을 운영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식 내외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본다.

이지연(9세)

철우의 여동생. 뭐든 척척 해내는 오빠를 믿고 의지한다. 순수하고 밝은 성격
의 전형적인 막내 여동생이다.

최광현(12세)

작년 같은 반 친구. 반장으로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귀뜸해준다.

김민호(12세)

철우와 같은 반 친구

줄 거 리

철우는 부모님,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매일 늦게 귀가하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두 남매를 길러주셨다. 비록 가정형편은 넉넉지 못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자란다. 일찍 철이 들어 공부도 잘하고 매년 반장을 도맡는 모범생이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런 철우가 대견하면서도 짠하다.

5학년이 되어서도 반장을 맡은 철우. 평소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데다 친구들 앞에서 철우를 칭찬하는 담임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옆 반 반장인 광현이가 다른 반 반장들은 훌륭한 선물을 준비한 사실을 알려준다. 매년 반장이었어도, 항상 편지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이 전부였던 철우는 깜짝 놀란다. 지금이라도 선물을 준비하라는 친구의 조언에 마음이 다급해진다.

늦은 밤, 퇴근하신 부모님을 채근해 선물을 사러 나가자고 조른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편지와 카네이션으로 충분하다며 오히려 혼을 낸다.

반장으로서 담임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철우는 서럽게 울고, 그런 철우를 보는 아빠의 마음도 착잡하다. 아들을 달래 예쁜 카네이션 생화를 사주지만 철우는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다음날, 철우는 반 아이들을 능숙하게 이끌어 교실을 꾸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스승의 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지만, 별 것 아니란 생각에 준비했던 편지와 꽃은 드리지 않는다.

모두가 흥겨운데, 담임선생님은 홀로 침울한 철우를 발견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철우는 다른 반 반장들처럼 좋은 선물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일기를 쓰고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일전에 전하지 않은 편지와 꽃을 두고 간다.

이를 발견한 선생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철우의 일기에 긴 답글을 남긴다. 철우가 준 편지와 꽃처럼 진심이 담긴 선물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다른 반 반장들이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다수가 하는 행동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다보면 무엇이 옳은지 고민할 일이 많아질 테지만,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는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한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우울했던 철우는 이제 모든 걱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이 가볍다.

그날 밤. 철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족들과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을 타고 철우와 함께 초원을 달리는 꿈을 꾸다. 끝없는 초원을 누비며 걱정도 고민도 없이 행복하게.

썩/1

철우의 집 (과거1, 낮)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는 창문. 테두리가 낡아 보인다. 이어서 카메라 멀어지며 방 전체를 비춘다. 오래된 벽지, 노란 장판에서 세월과 가난함이 엿 보이지만 구석구석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다.

방 중앙, 엷드려 색칠 공부하는 여자아이(5세, 이지연)를 지나 부엌으로 화면 넘어간다.

부엌에는 할머니(68세, 김명자)가 작은 교자상 위에 김치, 콩나물무침, 멸치볶음 등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내려놓는다.

화면은 현관으로 이어지고 문이 벌컥 열린다. 남자 어린이(8세, 이철우)가 가방을 멘 채 뛰어 들어와 할머니에게 노트를 펼쳐 보인다. ‘100점’ 이 크게 적힌 받아쓰기 시험지다. 할머니는 노트를 받아들고 무어라 다정한 칭찬을 건네며 철우를 끌어안는다. 철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다.

방 안에 있던 동생이 부엌으로 나와 그런 둘을 쳐다본다. 높낮이가 다른 양갈래 머리에 부스스한 잔머리가 잔뜩 있는 애기 같은 얼굴로 배시시 웃는다.

썩/2

교실 (과거2, 낮)

3년 후.

교탁 앞에 선 철우(12세)가 당당한 몸짓으로 연설을 하고, 반 아이들은 집중해 바라본다. 측면에 서서 이를 지켜보는 선생님(40세, 서숙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걸린다.

이어서 칠판에 여러 아이들의 이름과 ‘正’ 이 연달아 적혀있는데, ‘이철우’ 이름 옆에 압도적으로 많다. 개표하는 아이가 마지막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 다른 아이가 칠판에 획을 긋는데, 역시 철우의 표다.

부끄럽지만 뿌듯한 표정의 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으로 걸어간다.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는 듯 무언가 말을 시작하고 조금 뒤 현재로 화면 넘어간다.

썸/3

철우의 방 (현재, 밤)

고요한 밤. 철우(12세)가 좌식 책상에 앉아 공부 중이다. 어두운 방 안에 유일한 빛은 책상 위 스탠드뿐이다. 공책에 연필을 놀리는 사각사각 소리, 탁상시계 초침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운다.

철우가 탁상시계를 힐끗 본다. 11시다. 작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철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곧장 현관으로 달려 나간다.

썸/4

철우의 집 현관 (밤)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린다. 피곤함이 잔뜩 묻어 굳은 표정의 엄마(39세, 한영은)와 아빠(43세, 이재현)가 비닐봉지에 담긴 짐 여럿과 가방을 둘러 맨 채 들어온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철우를 발견한 엄마.

엄마

철우니?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어?

아빠

철우? (철우 발견하고) 너 왜 여직 깨있어? 늦었다.

철우

(배시시 웃으며) 보여드릴 게 있어서 기다렸어요.

철우가 등 뒤에 감춰던 상패를 꺼내 건넨다. ‘전국 수학경시대회 초등부 금상’ 이하 수상 내용이 새겨있다.

짐을 내려놓는 것조차 잊은 엄마와 아빠가 상패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다. 엄마가 물기어린 눈을 들어 철우를 다정하게 바라보더니 양 손으로 손짓한다. 철우가 얇전히 와 안기자 엄마는 철우의 등을 어루만지며 토닥거린다.

엄마

우리 착한 아들... 엄마는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엄마에게 안긴 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 대견하다...

이윽고 꾸밈없이 행복한 철우의 얼굴,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미소를 짓는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번갈아 비춘다.

썬/5

철우의 방 (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철우. 여전히 스탠드 불빛 하나뿐이지만 방 안을 구석구석 비추는 노란빛이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행복한 기분을 곱씹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려 쳐다본다. 아빠다.

아빠

이제 자야지?

철우

네. 자려고요.

아빠는 뜬눈을 뜨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철우에게 건넨다. 플라스틱 말이 달린 조그만 열쇠고리다.

철우

(눈이 커지며) 우와! 말이다! (열쇠고리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아빠

오늘 시장에서 보고 네 생각나서 샀다. 네가 워낙 말을 좋아해서... (멈추고) 그런 큰 상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산 거니까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사주마.

철우

고마워요 아빠! 그래도 전... 이 열쇠고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열쇠고리에 달린 말은 미간의 하얀 줄무늬가 콧잔등까지 내려오는 얼굴과 역동적으로 뛰고 있는 듯 힘차게 꺾인 다리 모양을 하고 있다.

철우는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열쇠고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짝 움켜쥐고 선 아빠를 끌어안는다. 키가 작아 아빠의 허리춤에 매달린 모양새다. 아빠는 흐뭇한 미소로 철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썸/6

교실 (아침)

아이들 왁자지껄 떠들고 몇몇은 교실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선생님이 들어오자 모두 자세를 고쳐 앉고, 교실 뒤편에 있던 아이들도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선생님이 교단에 서자, 철우가 일어나 인사한다.

철우 차렷! (주변을 둘러보고 차렷임을 확인한 후) 인사!

아이들 (고개를 숙여 인사)안녕하세요!

철우, 자리에 앉는데

선생님 철우야 잠깐 앞으로 나와 줄래?

어리둥절한 철우, 걸어 나오고

선생님 (펼쳐진 노트를 건네며) 어젯밤 철우가 쓴 일기가 너무 멋져서 친구들에게 읽 어줬으면 좋겠는데, 철우야 읽어주겠니?

철우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네...

일기를 받아든 철우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한다.

철우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 다음으로 말을 가장 좋아한다.

길게 뻗은 속눈썹을 깜박이면 유리알처럼 맑고 검은 눈망울이 반짝인다. 그 안 은 달리고 싶은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바람에 휘날리는 갈기는 무슨 색이어도 상관없다. 흰색이든 갈색이든 바람에 따라 물결처럼 흐르면 그 우아함에 넋을 잃는다.

뭉툭 튀어나온 다리 관절이 리듬을 타고 꺾이면 다그닥, 다그닥 경쾌한 박자를 만들고 덩달아 내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친다.

내 꿈은 우리 가족들과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힘이

세고 튼튼한 갈색 말을, 할머니와 동생은 눈처럼 하얀 말을, 나는 윤기가 흐르는 검정말을 타고서 어떤 고민도 걱정도 없이 탁 트인 초원을 끝없이 달려보고 싶다.

선생님 자 모두 박수! 어때요? 너무 멋지죠? 선생님은 이렇게 멋진 꿈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도 철우처럼 멋진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멋진데!, 나도 말 좋아하는데! 등등 왁자지껄 떠들고, 철우는 친구들의 반응보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다. 철우가 자리로 돌아가면

선생님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3단원...

철우는 가지고 온 일기장을 다시 펼친다. 선생님의 정갈한 글씨체로 답글이 쓰여 있다.

『 철우가 이렇게 말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글만 봐도 느껴지는구나. 멋진 꿈을 갖고 있어서일까. 철우는 항상 의젓하고 마음이 넓어. 그런 철우가 반장이라 선생님은 참 고맙구나. 꼭 꿈을 이루길 바란다! 』

고개를 들어 한창 수업 중인 선생님을 바라본다. 철우의 가슴이 간질간질 기분이 좋다.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하교 중이다. 어떤 아이들은 군것질 거리를 손에 들고, 어떤 아이들은 앞서 걷는 친구의 가방에 사마귀를 올려놓으며 킬킬거린다. 이상함을 눈치 챈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곧장 술래잡기가 시작된다.

정신없는 하곳길. 철우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12세, 최광현)와 함께 나란히 걷고 있다.

광현 넌 내일 무슨 선물 드릴 거야?

철우 스승의 날 선물 말이야? 편지랑 직접 만든 카네이션 드릴거야. 넌?

광현 난 잘 몰라. 엄마가 준비하신대. 꽃다발이랑 무슨 스카프인지 손수건인지 뭐 그런 거겠어. 그런데 넌 반장인데 선물 안 드려도 돼?

철우 (조금 놀라며) 난 매년 반장이었어도 편지랑 카네이션만 드렸어... 반장은 선물을 드려야 해?

광현 난 올해 처음으로 반장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반장이니깐 올해는 신경 써야 한다고.

철우 (말없이 땅만 보고 걷는)

광현 맞다! 5반 반장 지선이는 반에 햄버거 돌릴 거래. 6반 반장 명수도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던데?

철우 (풀 죽어) 난 몰랐어. 선물을 드려야 했구나...

광현 (씩씩하게) 이번에 드리면 돼지! 내일이잖아.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선물 사달라고 해봐.

철우 (갑자기 표정 밝아지며) 맞아! 그러면 되겠다!

현관문이 열리고 다급하게 신발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뛰어 들어오는 철우.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는 동생(9세, 이지연)과 할머니(72세, 김명자)가 보인다. 작은 교자상에 앉아 공책에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동생과 그 옆에서 숙제를 봐주던 할머니가 철우를 발견한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 왔어? 배고프...

철우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 나랑 선생님 선물 사러 가요!

할머니 (어리둥절하며) 똥판지같이... 갑자기 무슨 선물?

철우 (다급하게)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반장은 선생님께 선물 드려야 한대요! 나만 모르고 지금까지 안 드렸던 거예요... 올해는 꼭 드려야 해요! 같이 사러 가요!

할머니 (난감해하며) 아이고... 철우야. 할미가 돈이 어딴니... 이따가 엄마아빠 오면 그 때 사달라고 해라. 응?

철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이 없는)

지연 (가우똥하며) 오빠. 내가 색종이 빌려줄게. 지난번처럼 카네이션 만들면 되잖아?

철우 (힘없이) 넌... 선생님께 무슨 선물 드릴거야?

지연 난 편지랑 공주님 그림 그려서 드릴거야. 오빠! 내 카네이션도 만들어 주면 안 돼? 나도 우리 선생님께 드릴래!

철우 (다시 말 없는)

할머니 (철우 달래며) 우리 강아지... 반장이라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못 챙겨줬구나... 조금만 기다려보자. 할미가 엄마아빠한테 말해 주꾸마.

철우 네... (여전히 힘없이) 지연아. 색종이 가져와. 카네이션 만들어 줄게.

지연 우와! 신난다! 빨간색이랑 분홍색 2개 만들어 주면 안 돼?

철우미소 (희미하게 웃으며) 그래.

지연이 방으로 달려가 색종이를 가져온다. 철우가 동생의 카네이션을 예쁘게 접어주고, 지연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오빠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한다.

할머니 (남매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아휴... 이쁜 강아지들...

고요한 집안. 화면은 어두운 현관을 비춘다. 곧이어 열쇠 꽂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피곤한 표정의 엄마아빠가 들어온다. 신발장의 센서등이 켜짐과 동시에 작은 방에서 철우가 튀어나온다. 뒤이어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할머니.

철우 엄마! 선생님 선물 사러 가요! 스승의 날 선물이에요!
 아빠 (미간을 찌푸리며) 뭐?
 엄마 (한숨 쉬며)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로 들었던 얘데요.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반장이라서 선물을 사가야 한다고...
 아빠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짐 정리하는)
 철우 (엄마아빠 뒤를 따라다니며) 광현이가 그랬는데, 반장들은 선생님한테 선물 하는 거래요. 나만 모르고 지금까지 안 드렸던 거구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선물 사러 가요. (간절히) 네?!
 엄마 (다시 한숨) 철우야. 스승의 날엔 뭘 사서 드리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지난번처럼 정성을 다한 편지랑 카네이션 예쁘게 접어서...
 철우 (엄마의 말을 자르고 버럭 화내며) 카네이션 안 할 거예요! 광현이도 그렇고, 5반 지선이도, 6반 명수도! 반장인 애들은 전부 멋진 선물 준비했다는데, 나만... 나만...! 그런 거 드릴 수 없어요!
 아빠 (엄하게) 이철우. 어디서 큰 소리야!
 철우 (우물쭈물 말을 잇지 못하는데)
 할머니 (안타까워서) 아야. 애가 오죽하면 저러겠냐... 말썽 한번 안 피우는 착한 애가...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아빠 어머니. 앞 뒤 안 가리고 버릇없이 구는 건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이철우. 따라와.

단호한 태도로 앞장 서는 아빠,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 뒤를 따르는 철우의 어깨가 처량하다.

썸/10

철우의 방 (밤)

방바닥에 앉는 아빠. 마주앉은 철우는 무릎을 꿇는다.

아빠 이철우. 방금 내가 잘못 한 건 알고 있어?

철우 (주눅 들어) 엄마한테 큰 소리 낸 건 죄송해요... 하지만 자꾸 선물은 안 사주시고 카네이션... 그 카네이션만 접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빠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철우야. 그건 엄마 말이 맞아. 네가 반장이든 아니든, 스승의 날은 비싼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야. 정성이 중요한 거야.

철우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아빠 아빠 말 듣고 있어?

철우 (눈물이 그렇그렁 맺히더니 기어코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다른 반 반장들은 전부... 좋은 선물을 드리는데... 후... (팔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내고)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또 다시 눈물방울 똑 떨어지고) 나는 반장인데도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철우는 이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서럽게 운다. 온 몸을 들썩이며 흐느끼는 작은 몸집의 아들을 마주하자, 아빠는 가슴을 찌르르 관통하는 시큰한 통증을 느낀다. 어느새 아빠의 눈가도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한다. 아빠는 철우에게 다가가 두 팔로 안아주는데, 철우의 몸은 벌써 열이 오르고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있다.

아빠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서럽게 울 건 뭐냐... 철우야. 지금은 엄마아빠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시라면 더더욱 정성어린 선물을 좋아하실 거야. (더 꼭 껴안아주며) 내일 아빠가 예쁜 카네이션 생화 사다줄 테니 선생님께 드리자. 편지는 썼어?

철우 (쉼 목소리) 네...

아빠 목까지 다 쉬었네. 편지랑 꽃이랑 가져다 드리면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알겠지?

철우 (마지못해) 네...

철우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아빠는 착잡한 표정이다.

단 한 번도 뭔가를 요구한 적 없이 놀라울 만큼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다. 그런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원한 일인데, 들어줄 걸 그랬나... 언제나 어른스럽게 잘 해쳐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부담만 준 건 아닌지. 부끄럽게도 이 작은 아이에게 깊이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한다.

철우는 아빠의 품에 안겨 아직 가지지 않은 눈물을 닦는다. 아빠의 다정한 목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조를 순 없지만,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지 못해 여전히 아쉽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게만 느껴진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썸/11 **등꽃길 골목 (아침)**

카네이션이 예쁘게 핀 화분을 두 손에 들고 터벅터벅 걷는 철우. 우울한 눈빛으로 카네이션을 내려다보는데, 아침에 가족들이 했던 말들이 다시 기억난다. 화면은 꽃을 내려다보는 철우의 표정 클로즈업 하고, 가족들 목소리만 들린다.

아빠 (E) 아침에 큰 길 사거리까지 가서 사왔다. 제일 예쁜 꽃으로 사왔으니깐,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고.

엄마 (E) 걱정 마.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엄마아빠 가게로 전화해!

할머니 (E) 아가. 학교 다녀 온나. 아침부터 영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여간 걱정스럽구만...

지연 (E) 오빠. 이따 봐!

철우 (한숨 쉬고)

힘없이 걸음을 옮기는 철우의 뒷모습을 비춘다. 점점 멀어지고

철우가 앞문을 드르륵 열고 교실에 들어선다. 교탁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들이 쌓여 있다. 철우, 더욱 침울하다.

철우 (교탁 향해 걷다가 카네이션 한번 내려다보고 멈칫)
 민호 (반갑게) 왔어? (꽃 보고) 오 꽃이네? 무슨 꽃이야?
 철우 (당황하며) 어? 아냐. 아무 것도 아니야. (등 뒤로 꽃 숨기며 급히 말 돌리는) 우리 오늘 스승의 날 기념으로 뭐 하기로 했지?
 민호 (이상하게 쳐다보며) 왜 그래? 네가 계획했잖아. 칠판에 각자 하고 싶은 말 적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면서 하트하자며. 기억 안나?
 철우 아아... 그랬지 참. 그전에 우리 풍선부터 붙어야 해. 색지로 고리 만들어서 장식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정신이 없었네. 얼른 시작하자!
 민호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철우를 쳐다보고)
 철우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뜨는) 그나저나, 이 꽃을 어쩐다...

잠시 고민하더니 사물함에 화분과 편지를 넣는다. 찜찜한 표정이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선 교탁으로 걸어간다.

철우 (큰 소리로) 애들아! 오늘은 선생님께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해! 칠판에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낙서하다 걸리면... 알지? (웃고) 그리고 지난번에 정했던 대로 1,2분단은 색지로 고리를 만들어 장식하고, 3,4분단은 풍선을 붙어서 벽에 장식해야 해. 시간이 없으니 우리 서두르자!

집중하는 아이들. 이야기 끝나기 무섭게 그래, 좋아, 오케이! 외치며 분주히 움직인다.

교단에서 내려오던 철우는 교탁에 쌓인 선물에 시선이 간다. 다시 마음이 무겁다. 어두운 표정도 잠시, 1분단으로 달려가 가위질을 돕는다.

칠판에는 색색 분필로 크게 적은 ‘스승의 날’, ‘사랑해요 선생님’ 를 기준으로 작은 글자들이 자잘하게 쓰여 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뵐요’ 등 간단한 인사나 ‘독후감 쓰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진심어린 감사가 주를 이루고 간혹 ‘미숙이 똥개’ 같은 낙서도 있다.

칠판과 교실 벽 곳곳이 알록달록 풍선과 색지로 만든 고리 사슬로 화려하다. 평소와 달리 모두 자리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아이들의 눈빛은 기대와 긴장감으로 초롱초롱 빛난다.

이윽고 복도 나무 바닥이 삐그덕 거리고 앞문이 드르륵 열린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가 갖고 있던 제과점 폭죽을 뽕 터트린다.

선생님

(깜짝 놀랐지만, 기분 좋게) 어머니!

아이들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시종일관 미소가 떠나지 않는 선생님. 귀여워 죽겠다는 얼굴로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본다. 어느덧 노래가 끝나고

아이들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선생님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박수치며) 고마워요 여러분! 최고의 노래였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감동받은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철우는 선생님의 말이 아득하게 들린다. 오직 교탁 위에 쌓인 선물만 신경 쓰인다. 뒤를 돌아 화분과 편지가 있을 사물함을 쳐다보지만 더욱 우울해질 뿐이다.

철우

(중얼) 저렇게 선물이 많은데... 꽃하고 편지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으실 거야.

선생님이 농담을 하셨는지 갑자기 아이들 다 같이 푸하하 웃음을 터트린다. 선생님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딱 한 명, 반장 철우의 표정만 어둡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아해한다.

선생님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야지?
아이들 (양탈) 아아아.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선생님 (애초에 수업할 생각이 없었던 듯) 좋아! 재밌는 얘기 전에... (낮은 목소리)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다들 오늘 밤... 잠들 자신 있죠?!

여자 아이들은 귀를 막고 까까 거리며 난리고, 남자애들은 손까지 번쩍 들며
네! 하고 크게 외치는 등 떠들썩하다.
선생님은 그 와중에도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는 철우를 눈여겨보지만,
티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이야기를 시작한 선생님과 흥미진진한 표정의 아이들. 그와 상반되게 홀로 울
적한 철우의 얼굴을 차례로 비춘다.

썸/14 **철우의 방 (밤)**

조용하고 어두운 방. 스탠드 불빛 아래, 좌식책상에 앉아 공책을 뚫어져라 내
려 보는 철우. 몇 글자 쓰다가 다시 멈칫, 한숨을 내쉬다. 마음이 복잡하다.

철우 (중얼) 편지라도 드릴걸... 아니, 그냥 꽃이랑 같이 드릴걸 그랬나...

조금 더 고민하다가, 결심을 한 듯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공책에 글을 써내려간
다.

깊은 밤. 공책을 스치는 연필소리만 사각사각 들린다.

썸/15

교무실 (낮)

공책을 품에 안은 철우가 조심스레 교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등 뒤로 감춘 손에는 어제 사물함에 숨겼던 편지와 화분이 든 쇼핑백이 들렸다.
각 자리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얽혀 산만하지만 활기찬 분위기다.

철우 (두리번)

5반 선생님 (반갑게) 철우 왔구나. 담임 선생님 찾니?

철우 (재빨리) 아니요! (작은 목소리) 아직 일기를 제출하지 못 해서요...

5반 선생님 아아. 참, 지난번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도 받고! 대단해!

철우 (어색한 웃음) 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 자리 피하고)

다행히 담임 선생님의 자리는 공석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철우. 책상으로 다가간다. 책상 위에는 반 아이들의 일기장이 쌓여있다. 그 사이로 가지고 온 일기장을 쑤셔 넣고, 들고 온 쇼핑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선생님 (철우 등 뒤에서) 철우 왔니?

철우 (흠칫 놀라서 뒤 돌아보는) 네?!

선생님 (장난기 있는 미소) 왜 이렇게 놀래? 선생님한테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철우 (머뭇) 저 그게...

선생님 (궁금해서) 응?

철우 (쌓여있는 일기장과 쇼핑백 힐끗 보고) 아니에요...! (고개 숙여 인사) 안녕히 계세요!

달아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나가는 철우. 그런 뒷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선생님.

선생님 (중얼) 어제부터... 많이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쇼핑백 발견하고) 이건...?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쇼핑백 속 내용물을 꺼내고, 찬찬히 편지를 읽는다.

또박또박 반듯한 글씨가 뽁뽁이 찬 편지다. 서두에는 ‘선생님께’, 말미에는 ‘철우 올림’ 이라고 적혀있다.

편지를 읽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다 읽은 편지를 내려놓는데, 일기장 더미 중 모서리가 삐져나온 공책 하나가 눈에 띈다. 제대로 정리하려고 보니 ‘이철우’ 이름이 보인다. 곧장 공책을 빼내 펼친다. 어제의 일기가 적혀 있다.

『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스승의 날이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교실을 꾸미고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다. 다행이다.

하지만 선생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어제 3반 광현이가 반장이라면 특별히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다른 반 반장들은 이미 비싼 선물들을 준비했다고 알려줬는데도 나는 아무 것도 드리지 못해서다.

퇴근하신 엄마와 아빠에게 선물을 사러 나가자고 졸랐지만 오히려 혼만 났다. 두 분 모두 선물은 정성이 중요하기에 편지와 카네이션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반장인데...

교탁에 쌓여있는 선물들을 보자 차마 내가 가져온 초라한 편지와 꽃을 드릴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죄송스러운 생각만 들었다. 다른 반 선생님들은 꽃다발과 스카프 같은 선물을 받으시고, 애들은 햄버거를 먹고 있을 텐데...

선생님.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일기로나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꽃과 편지뿐이지만, 어른이 되면 꼭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약속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

일기를 읽을수록 선생님의 표정이 어둡다. 일기의 맨 아래에는 ‘화장품 쿠폰’, ‘꽃다발 쿠폰’ 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다. 선생님은 그 쿠폰을 몇 번 쓰다듬고는 그 밑에 답글을 적기 시작한다.

얇은 언덕배기 골목을 오르는 철우. 신발을 끌며 걷더니 괜히 엄한 돌멩이를 툭툭 차기도 한다.

문득 먼 곳을 바라보면, 낡은 아파트가 솟아 있는 게 보인다. 잠시 멈춰 서서 고민하다가 오른편 놀이터로 방향 바꾼다.

놀이터 정자에 앉은 철우.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을 멍하니 쳐다본다. 을씨년스러운 골목길은 온통 회색빛 아스팔트와 색 바랜 벽뿐이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갑자기 가방을 벗어 일기장을 꺼낸다.

철우 (일기장 표지를 뚫어지게 보며) 오늘도... 선생님께서 답글을 달아 주셨겠지?
휴...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일기장을 펼친다.

언제나처럼 선생님의 정갈한 글씨가 보인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긴 글이다.

철우 (놀라서)어?

『 철우가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안 그래도 어제 종일 표정이 어두워 걱정했었는데... 선생님이 알아채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런데 철우야. 그거 아니? 어제 선생님이 받았던 선물들은 모두 되돌려줬단다. 사실 그런 선물 100개보다 철우가 준 것 같이 진심을 담은 편지와 꽃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

그 편지는 두 번 세 번 읽어도 매번 기분이 좋아진단다. 꽃은 또 어찌나 예쁘지 다른 선생님들도 부러워했어.

철우야. 선생님은 철우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미안해하고 걱정했다는 것도.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두렴.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때는, 화려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기보다 소박하지만 진심을 담으면 충분하다는 걸. 내가 쓴 편지처럼.

살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만 옳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와 다른 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꼭 바른 것만은 아니란다. 다른 반 반장들이 선생님께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말이야.

철우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착각할만한 일들이 더욱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철우의 바른 생각대로 소신있게 행동하면 된단다.

혹시 혼자서 고민하기 힘들면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오렴!

그럼 이제 모든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밝은 너로 돌아와 줄 수 있지? 기대할게. 내일보자! 』

철우

(울먹이며) 선생님... (눈물 뚝 떨어지면 팔등으로 훔쳐내고 코를 훌쩍)

고개를 들어 다시 골목길을 바라본다. 마침 해질녘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그 길로 젊은 엄마와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간다. 두런두런 말소리, 이윽고 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녀. 그런 둘을 지켜보는 철우의 입가에도 스르르 미소가 떠오른다.

엉덩이를 툭툭 털고 가뿐하게 걸음을 옮긴다. 시선을 멀리하면 다시 낯은 아파트가 보이는데, 노을이 비취 아름답게 물들어 있다.

빠른 걸음은 곧 뽀박질이 되고, 그런 철우의 뒷모습을 오래토록 비추는 화면.

밝은 햇빛 아래 푸른 잔디가 바람에 췌췌 흔들리며 물결친다.

너른 초원. 저 멀리 점 6개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철우, 가족들, 선생님이다.

검은 갈기가 휘날리고 온 몸의 털은 윤기로 반짝이는 검은 말을 탄 철우가 선 두에 있다.

더없이 활짝 웃고서 바람을 만끽하는 철우, 오른쪽으로 뒤 돌아본다.

나란히 말을 타고 달려오는 부모님. 똑같이 생긴 갈색 말을 타고 하하하 크게 웃고 계신다. 콧잔등에 흰 무늬가 있는 쌍둥이 말이 멋지다.

그 옆에는 할머니가 지연이를 안고 눈처럼 하얀 말을 타고 달린다. 모두 즐거워 보인다.

다시 철우. 가족들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오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선생님이 보인다. 하얀 말을 타고서 철우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다.

바람 소리에 묻혔던 철우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더니 점점 크게 들리고, 메아리처럼 퍼진다.

행복을 온 몸으로 느끼는 듯 두 눈을 감은 철우의 얼굴 클로즈업 하며. 끝.